

‘아시아 최고 공사는?’...광주서 9월 아시아컵 2차 대회

25개국 대표 외국인 300명·국내 16명 참가
개인전·단체전 등 10개 종목...토너먼트 방식

아시아 최고의 공사를 가리는 아시아컵 2차 양궁대회가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대회는 9월 중 닷새 동안 치러진다. 아시아양궁연맹(WAA) 공인대회로, 25개국을 대표하는 외국인 선수 300명과 국내 16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리커브 남녀 개인전, 남녀 단체전, 혼성단체전, 컴파운드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단체전 등 모두 10개 종목으로 올림픽 라운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상 참가선수로는 리커브 보우 세계랭킹 1위인 강채영 선수(현대모비스)와 랭킹 2위 이우석 선수(코오롱스포츠) 등이 있으며,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등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가 열리는 광주 국제양궁장은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신축한 연면적 3201㎡, 부지 4만5396㎡ 규모의 국제경기장으로 1077석의 관중석을 갖춘 2층 건물과 580석의 관중석을

갖춘 야외경기장으로 구성됐다. 이 경기장은 2019년 중국, 일본, 프랑스 국가대표팀이 전지훈련을 다녀갈 정도로 뛰어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다. 앞서 광주에서는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의 국제경기 개최된 바 있다. 광주시는 대회 개최에 따른 스포

츠마케팅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1일 “이번 대회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스포츠 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며 “활용한 양궁인프라를 활용,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토트넘의 손흥민이 2월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번리와와의 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6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드리블하고 있다. 손흥민은 전반 1분과 후반 10분 개러스 베일의 골을 도우며 리그 7,8호 도움을 올렸고 토트넘은 4-0으로 완승했다.

손흥민, 8번째 ‘킹 오브 더 매치’ 선정 번리전 선발 출전 도움 2개 기록 토트넘 4-0 승리 이끌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시즌 8번째로 경기 최우수선수(MVP) 격인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다.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번리와와의 2020-2021 EPL 26라운

드에서 선발 출전해 도움 2개를 올리며 토트넘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최근 리그 6경기에서 1승5패로 부진했던 토트넘은 대승으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 11승6무8패(승점 39)를 거둬 8위로 올라섰다. 손흥민은 경기 후, 팬들이 선정한

는 ‘킹 오브 더 매치’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즌에만 벌써 8번째 선정이다. 55.3%의 지지를 얻어 2골 1도움을 기록한 동료 개러스 베일(39.3%)을 따돌렸다. 평점에선 베일이 우위였다. 유럽축구통계전문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8.9점을 부여했다. 베일이 9.6점으로 가장 높았다. 1골을 기록한 해리 케인도 8.7점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다. 모처럼 ‘K(케인)·B(베일)·S(손흥민)’ 라인이 함께 필멸 활약한 경기였다. 뉴시스

김하성, ML 첫 시범경기서 2타수 무안타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메이저리그(MLB) 첫 시범경기에서 무안타에 그쳤다. 김하성은 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의 피오리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7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2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이날 김하성은 무안타에 그쳤지만 괜찮은 타격감을 보였다. 시애틀 좌완 선발 마르코 곤잘레스를 상대한 김하성은 1-1로 맞선 2회초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곤잘레스는 2019년 16승을 올렸던 투수다. 김하성은 4회 1사 주자 없는 상황



에서는 풀카운트까지 가는 승부 끝에 중견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김하성은 지난 1월 샌디에이고와 4+1년 최대 3900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 샌디에이고도 김하성에 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뉴시스

이승우, 포르투갈 무대 데뷔 다음으로...4경기째 결장

포르투갈 프로축구 1부리그에 진출한 이승우(포르티모넨스)의 데뷔전은 언제일까. 4경기째 결장하며 데뷔를 다음으로 미뤘다. 신트 트라위덴(벨기에)에서 포르티모넨스로 임대 이적한 이승우가 1일(한국시간) 포르투갈 포르티모의 포르

티망 스타디움에서 열린 마르티무와의 2020-2021 프리메이라리가 21라운드에서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달 새롭게 포르티모넨스 유니폼을 입은 이승우는 합류 이후 4경기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데뷔가 점점 늦어지는 모습이다. 뉴시스

포르티모넨스는 강등권에 있는 약체 마르티무를 상대로 0-0으로 비겨 승점 1점에 만족했다. 마르티무(승점 18)는 18개 구단 중 17위에 있다. 포르티모넨스(5승5무11패 승점 20)는 13위에 머물렀다. 뉴시스

‘게인브리지 4위’ 고진영 “부족한 부분 보완”...우승 도전

“내 나름대로 세운 목표 더 과감하게 실행해보고파”

세계랭킹 1위 고진영(26)이 우승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고진영은 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앤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게인브리지 LPGA(총상금 200만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3개를 쳐 1언더파 71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를 친 고진영은 4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1년 들어 첫 대회에 나선 고진영은 여전히 이름값을 했다. 이날 고진영은 퍼트에 곤혹을 치렀다. 고진영은 “오늘 버디 기회가 많았는데 많이 놓쳤다. 1언더파밖에 못 쳤다. 첫 대회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 대회에는 좀 더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한국명 고보경)와 동반 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 “보경이와 항상 많이 쳤다. 같은 성이라 그런지 부모님끼리도 친분이 있다. 같이 칠 때 마다 보경이가 잘 친다. 내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더 많이 배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퍼트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고진영은 “그린이 까다로워서 그린이 읽는 게 조금 어려웠다. 보경이도 어렵다고 하더라. 나는 이번이 처음이고, 보경이는 3년을 살았는데도 어렵다고 하는 걸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됐다. 나중에 다시 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나은 플레이를 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고진영은 곧바로 다음 대회로 시선을 돌렸다. “다음주까지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서 보여드리고 싶다.



내 나름대로 세운 목표를 더 과감하게 실행해보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리디아 고는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를 쳐 공동 2위에 올랐다. 뉴시스

무너진 흥국생명의 아성, 이제 1위는 GS칼텍스

GS칼텍스, 흥국생명 누르고 V-리그 선두 도약



지난 2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 명과 GS칼텍스의 경기, GS칼텍스 선수들이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흥국생명의 아성이 마침내 무너졌다. 이제 1위는 GS칼텍스다. GS칼텍스는 2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전에서 세트스코어 3-1(25-19 25-19 22-25 25-17)로 이겼다. 흥국생명과 승점(53)과 다승(18승)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GS칼텍스는 세트득실률에서 앞서 1위로 올라섰다. 그동안에는 추격자였지만, 어느덧 정규리그 우승에 가장 가까운 팀이 됐다. 2008-2009시즌 이후 12년 묵은 정규리그 우승의 한을 풀 기회가 코앞까지 왔다. 러츠(30점)-강소휘(18점)-이소영(17점)의 삼각편대가 65점을 합작했다. 팀 블로킹(10-6), 팀 서브에이스(8-4) 등 대다수 공격 지표에서 흥국생명을 압도했다. 흥국생명은 2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개막 10연승을 질주하면서 독주 체제를 구축했지만, 이재영-이다

영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팀 전체가 흔들리더니 1위마저 빼앗겼다. 브루나(22점)와 김연경(15점)을 중심으로 선두 사수를 노렸지만 확연한 힘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최근 6경기 성적은 1승5패. 안혜진의 서브 에이스로 산뜻한 시작을 알린 GS칼텍스는 이소영과 러츠의 득점을 묶어 8-4로 달아났다. 흥국생명은 브루나가 초반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이면서 9-10으로 따라붙었다.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힘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흥국생명의 범실을 틈타 12-9로 달아난 GS칼텍스는 안혜진의 네트를 살짝 넘어가는 서브 에이스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반면 흥국생명은 포지션 폴트로 맥없이 실점하는 등 크게 주춤했다. 스코어는 15-9까지 벌어졌다. GS칼텍스는 19-15에서 문명화가 김연경의 강타를 블로킹으로 정확히 차단, 추격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1

세트는 GS칼텍스의 6점차 완승. 흥국생명은 1세트에서만 5개의 서브 에이스를 헌납했다. 2세트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GS칼텍스는 7-8에서 브루나의 범실과 강소휘의 서브 에이스, 러츠의 퀵오픈을 묶어 역전에 성공했다. 러츠는 흥국생명의 낮은 블로킹을 자유자재로 공략했다. 12-9에서는 브루나를 제물로 블로킹 손맛까지 봤다. 14-10에서는 몸을 던져 디그까지 성공, 이소영의 득점에 기여했다. 러츠의 위용은 시간이 지나도 꺾일 줄 몰랐다. 21-16에서 러츠는 각각 이한비와 브루나의 공격을 블로킹으로 돌려세웠다. 러츠는 2세트에서만 홀로 10점을 올렸다. 비랑 끝에 몰린 흥국생명은 3세트 들어 힘을 냈다. 10-11에서는 이주아, 이한비 등 주 득점 자원이 아닌 이들이 점수를 책임지면서 14-11로 앞섰다. 큰 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러츠를 막지 못해 16-17로 리드를 빼앗긴 흥국생명은 브루나의 후위공격이 연거푸 내리 꽂히면서 23-20을 만들었다. 24-22에서는 이주아가 러츠를 블로킹으로 봉쇄하면서 세트를 끝냈다. 전열을 정비한 GS칼텍스는 4세트 초반 다시 주도권을 가져왔다. 유효 블로킹에 이은 반격이 재미를 보면서 5-1로 앞섰다. 3세트 들어 리듬을 회복한 흥국생명이 곧장 따라붙으면서 두 팀은 중반까지 시소계임을 이어갔다. 승점 3을 향한 GS칼텍스 선수들의 집중력은 경기력으로 연결됐다. GS칼텍스는 15-14에서 상대 리시브 불안함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 연속 6득점,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흥국생명은 김미연과 이한비를 교대로 내보내면서 재차 반등을 노렸지만 역부족이었다. 뉴시스